

“‘말라서 보기 싫다’ 댓글이 날 변화시켰죠”

미니앨범 ‘워닝’ 뜨거운 쇼케이스

선미

가녀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단점이 된 장점, 그걸 보여주고 싶어타이틀곡 ‘사이렌’…내가 작사·작곡
부담 많았지만 공부하면서 덜어냈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을 대중이 좋아하는지 영민하게 알아차리고 ‘찰떡같이’ 소화한다. “나는 대중에게 음악을 들려드리려는 대중가수이기 때문”이라는, 보편적이지만 모범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가수 선미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10년 동안 이름 앞에 붙었던 ‘원더걸스’ 타이틀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듯하다. 그만큼 선미는 이제 독보적인 여성 솔로 가수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선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선미 장르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 바람은 4일 오후 발표한 미니앨범 ‘워닝’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날 새 앨범 발표를 기념해 서울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쇼케이스를 벌인 선미는 “나의 정체성과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어필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닝’은 지난해 여름 가요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가시나’와 올해 1월 선보인 ‘주인공’을 매듭짓는 내용이다. 타이틀곡 ‘사이렌’은 앞서 발표한 두 곡의 완결편이자 ‘선미표 섹시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곡으로, 선미가 작사·작곡했다.

“그동안 ‘제2의 엄정화’나 ‘제2의 이효리’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다. 두 선배님은 그들만의 장르와 아우라가 있다. 그분들의 에너지를 표방한다고 해도 제가 그걸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다. ‘제2의 누가’ 되는 것보다는 나의 정체성과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

선미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에너지는 ‘춤추는 찰나에 가녀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다.

“엄정화, 이효리 두 선배님은 여자인 내



가수 선미가 4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열린 새 음반 ‘워닝’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사이렌’ 무대를 펼치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가 봐도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하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몸은 연약해보여도 ‘악’으로 ‘강’으로 버티는 스타일이라 그 안에서 분명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단점을 또 다른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철저한 분석이 밑바탕되어야 가능하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다. 집안 내력이다. 두 남동생들도 보통 성인 남성들에 비해 왜소하다. 50kg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저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는 ‘못생겼다’ ‘너무 말라서 징그럽다’ ‘보기 싫다’라는 평가가 많다. 이를 저만의 장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사이렌’을 포함해 모두 7곡이 담겼다. 선미에게 “엄청난 행복”을 안겨준 ‘가시나’와 ‘주인공’도 빼놓을 수 없어서 앨범에 담았다. ‘사이렌’ 외에 ‘어딤트’ ‘블랙 펄’ ‘곡선’ ‘비밀테이프’ 등 나머지 신곡도 선미가 작사, 작곡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 앞서 발표한 두 곡이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더 부담이 됐다. 어차피 그 두 곡도 제 곡이지 않나. 부담을 내려놓고 어떤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다. 아무래도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다보니 저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에서 영감을 얻었다. 아름다운 노래로 뱀사공들을 유혹해 바다에 빠트린다는 내용에 빗대 “아름다운 것에만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록을 가사로 풀어냈다.

“‘사이렌’은 아름답지만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이 특이했다. 이야기를 잘 풀어서 노래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이렌’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리지 않나. 그 어원이 인어이자 마녀인 사이렌이더라.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더 욕심이 났다.”

‘사이렌’은 원더걸스로 활동하던 시절 타이틀곡 후보에도 올랐던 곡이기도 하다. 3년 전 원더걸스 밴드로 활동하던 시절 작업해 놓았지만, 밴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부 평가로 인해 아쉽게 채택되지 않았다.

선미의 이번 활동 목표는 하나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이 앨범을 그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바람이다.

“‘믿고 듣는 선미’라는 타이틀은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말이다. 그런 표현도 점차 대중에게 각인되는 것 같고,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 행복하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좋은 음악과 가수로 성장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이낙연 총리 ‘BTS 빌보드 1위’ 축하

김창완, 산울림 음반저작권 소송 승소

블랙핑크, 영국 팝스타 리파와 협업

영화 ‘지푸라기…’ 전도연 등 총출동

유승호 ‘복수가 돌아왔다’로 안방 복귀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1위를 축하했다. 이낙연 총리는 4일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올해 두 번째 빌보드 1위”라는 글을 올려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총리는 트위터에서 “1년에 두 번 빌보드 1위에 오른 가수는 비틀스,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 등 슈퍼스타뿐이라는 것. BTS, 축하드립니다”라고 썼다. 청와대도 트위터를 통해 “계속해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아미와 함께 청와대도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내놓은 ‘러브 유어셀프 결-앤서’로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가수 김창완이 밴드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과 관련해 음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8월17일 ‘서라벌레코오드사’ 홍모 전 대표와 음반제작자 손모씨 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창완이 제기한 소송에서 홍 전 대표와 손씨가 김창완에게 9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창완은 1977년 말부터 1980년 5월까지 서라벌레코오드사에서 산울림 1집~6집을 냈다. 이후 홍 전 대표 등은 저작권점권을 획득했다며 관련 음반을 냈다. 하지만 김창완은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핑크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와 협업한 신곡을 10월 전 세계에 공개했다. 두아 리파는 4일 SNS에 “10월19일(미국시간) 3개의 신곡이 포함된 슈퍼 디럭스 에디션 앨범을 발매한다”고 전했다. 블랙핑크가 참여한 곡은 ‘키스 앤드 메이크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단순 피쳐링 개념을 넘어 파트가 절반에 가까운 콜라보레이션 곡 형태”라고 전했다. 이번 작업은 두아 리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뮤직비디오는 양측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 평소 블랙핑크와 두아 리파는 서로의 팬임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다른 협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전도연, 정우성, 윤여정, 배성우, 진경 등 총무로 쟁쟁한 배우들이 의기투합했다. 이들과 함께 정만식, 신현빈, 김준한, 정가람 등 개성 강한 연기자들이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출연한다. 현재 한국영화계에서 관객의 인정을 받는 배우들이 총집결하는 모양새여서 눈길을 모은다. 8월30일 촬영을 시작한 영화는 서로 다른 욕망을 지닌 인간들이 벌이는 이야기로, 일본 작가 소네 케이스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공포와 욕망을 미스터리한 느와르의 색채로 그려낼 것이라고 제작사 측은 밝혔다. 신인 김용훈 감독이 연출해 현재 한창 촬영 중이다.

연기자 유승호가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유승호는 12월 방송할 예정인 SBS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로 시청자를 다시 만난다. 유승호는 올해 초 막을 내린 MBC 드라마 ‘로봇이 아니야’ 이후 휴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그는 1년 만에 안방극장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그가 주연하는 ‘복수가 돌아왔다’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린 채 퇴학을 당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간 복학생이 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승호는 극중 캐릭터를 가벼운 터치로 유쾌하게 풀어내는 임무를 맡았다. ‘복수가 돌아왔다’는 ‘기름진 펠로’의 함준호 PD가 연출한다.